

安 義 篇

顔氏家訓曰、有人民而後 有夫婦、有夫婦而後 有父子、有父子而後 有兄弟。

一家之親 此三者而已矣、自茲以往 至于九族 皆本於三親焉。故 於人倫 爲重也 不可不篤。

⇒ 《안씨가훈》에 말하기를, 사람이 있고 난 후에 부부(夫婦)가 있고, 부부가 있고 난 후에 부자(父子)가 있고, 부자가 있고 난 후에 형제(兄弟)가 있다. 한 집안에서 제일 친한 것은 이 세 가지뿐이니 여기에서부터 나아가 모든 가족에 이르기까지 이 세 가지가 근본이 된다. 그러므로 인륜에 있어 이것이 가장 소중하니 두텁게 지내지 않을 수 없다.

⇒ 《顔氏家訓》に言うのに人がいた後に夫婦があつて、夫婦がいた後に父子があつて、父子がいた後に兄弟がある。一の家で一番親しいことはこの三つだけだからここから繋がってすべての家族に至るまでこの三つが根本になる。だから人倫においてこれが一番大事だから厚く過ごさざるを得ない。

莊子曰、兄弟 爲手足 夫婦 爲衣服 依服破時 更得新 手足斷時 難可續。

⇒ 장자가 말하기를, 형제는 수족(手足)과 같고 부부는 옷과 같아서 옷이 찢어질 때는 새 옷을 다시 만들어 갈아 입을 수 있지만 수족이 한 번 끊어지면 다시 잇기가 어렵다.

⇒ 莊子が言うのに兄弟は手足のようで夫婦は服のようで服が破れる時は新しい服をまた作って着替えることができるが手足が一度切れればまた繋ぐのが難しい。

蘇東坡云 副不親兮貧不疎 此是人間大丈夫 富則進兮貧則退 此是人間眞小輩。

⇒ 소동파가 이르기를, 부자라고 해서 친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멀리하지 않는 바로 이런 사람이 인간 세상에서 대장부이고, 부자이면 나아가고 가난하면 물러가는 바로 이런 사람이 인간 세상에서 진실로 소인배이다.

⇒ 蘇東坡が言うのに金持ちとして親しくなくて貧しいからといって遠ざけない正しくこんな人が人間世の中で大丈夫で、金持ちなら進んで貧しければ退く正しくこんな人が人間世の中で真実で姑息な人だ。